

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·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1929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유 용·김기대·김경우
김제리·김창원·김춘례
노승재·신원철·이은주
이병도·이승미·안광석
조상호·김정태 의원
(14명)

1. 주 문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,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2032 서울·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에 대비한 의회차원의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위하여 ‘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·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’를 구성한다.
-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고, 그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,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

2. 제안이유

-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서울시는 2032하계올림픽의 국내유치 도시로 문체부·기재부 승인 및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IOC(국제올림픽위원회) 등 국제절차를 남겨둔 상태임.

남·북(서울·평양) 공동 올림픽 유치는 급변하는 남·북관계 정세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으며 체육 분야 뿐만 아니라 교통, 미디어, 의료, 안전 등 다각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한 바, 서울특별시의회에 2032서울·평양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,
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37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 타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·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- 남·북한 정상외 2032년 하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공동개최 추진에 대한 2018년 ‘9월 평화공동선언 합의문’ 서명 이후 IOC와 남·북 체육장관의 올림픽 유치방안 논의 등 다각도로 교류협력 방안모색이 이루어진 바 있다. 그러나 최근 북미대화의 교착 속에서 국제정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고 있는 상황이다.
- 서울·평양 올림픽 공동유치는 대회 준비 및 개최 과정에서 평화 분위기 조성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한반도의 실현은 물론 공동체로서 유대감을 높여주고, 육로진출이 막혀 있던 대륙 경제권에 접근할 기회를 통해 분단 비용이 감소되며, 한류를 비롯한 공연, 영화, 전통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선보여 문화산업 발달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. 또한 국제스포츠계 영향력 강화와 도시 교통 인프라 향상,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.
- 이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는 남·북관계에서 올림픽 유치는 체육 분야 뿐 아니라 교통, 미디어, 의료, 안전 등 전 분야에 걸친 다각적인 검토와 지원이 필요한 바,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를 위하여 “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·평양 하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” 구성을 결의한다.

2020. 10.

서울특별시의회의원일동